

전통예술 대중화 · 세계화 주력

전주세계소리축제,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 개막공연 ‘심청’ 해외 진출 염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과 함께 올해 개막공연 ‘심청’을 준비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소리축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공모사업 선정 의미를 비롯해 세계적인 연출가 요나 김과 함께 만드는 개막공연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4억 5천만원씩 최대 3년간 13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시장 거점화로 성장을 위한 장르 특화 3개년 스케일업 기획사업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통 분야 유일의 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5년간 쌓아온 축제 운영 노하우와 전 세계 5만여 명의 예술가 그리고 국내외 프리랜터 네트워크, 해외 축제 및 기관들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타깃 시장 확보 개척 및 해외 시장 대상 브랜드 확립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소리축제만의 강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심청’은 현시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오페라 연출가와 국립창극단의 만남으로 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리축제는 이번 개막공



전주세계소리축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의미를 비롯해 세계적인 연출가 요나 김과 함께 만드는 개막공연 ‘심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연을 축제의 대표적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희선 위원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국내 유일의 전통 장르 해외 유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통과 창작, 신진 중견 동시대 예술가들의 국제 유통 플랫폼이 돼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겠다는 소리축제의 아젠다를 공고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미 ‘심청’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예술가들의 관심이 높다. 전통예술의 공연예술제가 국립기관 및 해외 연출진과 협력해 주목받는 작품을 제작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 소리축제의 역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리축제의 미래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소리축제가 전통을 대표해 전북의 자력이자 자라나고 되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세이브더칠드런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4일 하안양읍에서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동관)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아동권리 확산을 위한 콘텐츠 교류,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협력, △문화예술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아동권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하안양읍에서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행사를 공동 기획 및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 금구산성, 후백제 시기 활용 ‘집수정지’ 실체 확인

후백제시대의 정신적 중심 역할을 했던 금구산 일원과 금구산성의 역사를 발굴조사한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금구산성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학술자문회의를 조사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구산성은 조선시대 지리지 등에 따르면 ‘봉두산성’으로도 일컬어지며, 금구면 남동쪽 봉두산 정상에 감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그간 산성 주변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시설로 활용돼 왔음을 알 수 있는 기와편, 도기편 등 다양한 유물들이 지표상에 다량 분포돼 주요한 관방유적으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봉두산 정상부에 오르면, 후백제 수도권 방어에 취약한 서남부권의 평야 및 해안지역에 해당하는 정읍, 익산, 군산, 완주, 부안 등을 모두 조망할 수 있어 후백제 시기 최적의 수도 방어성으로서 추정되고 있는 산성이다.

시는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에 의뢰해 산성의 주둔군이 활용했던 추정 집수정지(식수 등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큰 우물)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삼국시대부터 후백제시대에 이르는 집수정 1기와 석축 1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됐다.

상시 전시체제였던 후백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후백제의 수도인 완산주의 서남부를 방어하던 주요 관방유적으로서 그 성격이 구체화 됐다는 평가이다.

시는 이번 학술자문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해 인근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을 추가로 확대 조사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후백제시대의 정신적 중심 역할을 했던 금구산 일원과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금구산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국가유산인 김제시민의 자긍심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행위예술가 퍼포먼스 설치 드로잉전

전주 기린미술관서 19일~5월 15일 개최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오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국 행위예술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설치 드로잉전이 ‘한 공간에 내가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작년 4월에 기린미술관과 한국행위예술가 협회는 MOU를 체결해 매년 벚꽃이 피는 봄에 퍼포먼스 설치 드로잉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드로잉과 설치를 결합한 형태로,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퍼포먼스 설치 드로잉전에는 기존세대와 MZ세대 작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게 되어, 권영일, 김백기, 김석환, 김용수, 방그레, 변영환, 서화영, 성능경, 성백, 손경대, 심홍재, 오광해, 유지환, 윤진설, 윤해경, 이효림, 임택준, 조성진, 조은성, 조혜림 등 한국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예술가 20명이 함께 한다.

이번 전시의 오픈 행사로 4월 19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첫 시작은 미술관 남쪽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며, 이후 2부는 기린미술관 실내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합동으로 하는 드로잉 퍼포먼스로 막



을 내린다.

행위예술은 예술가가 자신의 몸과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독창적인 예술 방식 중 하나이다. 행위예술가들의 드로잉과 설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이번 드로잉전을 통해 전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행위예술가들의 퍼포먼스와 작품으로 예술과 관객이 하나되는 특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위예술가협회 심홍재 회장은 “요즘 같이 따뜻한 햇살 아래 개방된 거리에서 개성있고 매력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행위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고 소감을 이야기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문화재단, ‘제31회 전국한지공예대전’ 3개 부문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제31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출품작 모집에 본격 나섰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통 부문에는 지호, 지승, 색지, 지장, 지화, 부채, 수묵지 등이며, 현대 부문은 한지조형, 의상, 다종이인형, 한지그림, 한지부조, 한지등, 한지종이접기, 낙화 등을 아우른다. 문화상품 및 기타 부문에서는 문화상품을 비롯해 민화를 응용한 한지공예, 창작한지, 응용한지 등이 포함됐다.

시장 규모 또한 역대 최대다. 대상 1명을 비롯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특별상 15명을 포함한 총 26명에게 상장과 함께 총 3,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참여자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jcf.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9월 12~14일 3일간 작품과 함께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10월 한 달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 기획전시실에 전시되며, 시상식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춘향제 제4차 추진상황 보고회

남원시는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시장 주재로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4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행사 전반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전 부서 총력 대응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회의에는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과 행사 담당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사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

하고, 개·폐막식, 동행축제, 대동 길놀이, F&B 등 주요 콘텐츠의 준비 상태와 현장 운영 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안전관리 대책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교통·질서 유지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최경식 시장은 “춘향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남원의 정체성과 미래를 보여주는 문화 융합형 글로벌 축제”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완벽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